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연말연초에 여러 차례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 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가 되었을 때 레임덕으로 봐야 할까?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단지 역대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을 보인 임기 4~5년차 무렵의 지지율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단순지지율로만 판단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레임덕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지지율 뿐만 아니라 지지율의 강도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레임덕

먼저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로 레임덕 여부를 보면, 현재 문 대통령의 35% 전후~40% 초반 지지율로는 레임덕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성적 측면 즉 지지율의 강도를 보면 달라진다.

즉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중립적 합의형이 아니라 대립적 갈등형 분포다. 그러나 보니 대통령의 전체 긍정평가(40.7%) vs 부정평가(56.9%) 비율이 1.40이지만, 매우 긍정(20.9%) vs 매우 부정(41.3%) 비율은 1.98로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당선된 대통령이다. 다시 말해서 생태적으로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보수층의 반동적 저항은 당연히 강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 35~40% 수준으로는 레임덕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비토 그룹의 크기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체감 지지율은 레임덕 상황이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년 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결과적 평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기도 하다. 그럼 문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까? 앞서 말한 대로 과거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시작된 30%보다는 10%p 더 높은 40% 수준은 돼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임기 말은 국민들이 임기 초기 기대감으로 바라보던 허니문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내심으로 4년을 기다린 국민들은 구체적 성과를 보고 평가한다.

국민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진정성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여 지금까지처럼 반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종교칼럼

‘새벽을 깨우자’



임형준 순천 빛보타교회 담임목사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혹한의 겨울을 맞고 있다. 이 죽을처럼 긴 겨울이 지나면 분명 코끝 간질거리는 꽃가루와 아지랑이가 가물거림 넘어 봄은 노란 개나리 산들거리며 다가올 것이다.

이런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새벽이 아침에 시간을 넘겨줄 때 찾아오는 이 감정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니 깨닫게 된다.

인간의 삶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로 얽혀져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불안정한 삶에 매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끌려가다 보면 안간힘을 써도 노예적 삶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새벽은 이런 삶에 고요되어 있지 않은 자유 그 자체이다. 균형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는 자유의 공간, 그 무엇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멋지고 매력적인 새벽 시간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를 풀고 잠시나마 자연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절호의 시간이다. 현실의 소리에 마취되어 상상의 날개가 꺾어지면 슬픈 자아를 발견한다면 이젠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한다.

성경 시편에 새벽을 깨우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깎이지라 비파야, 수금야, 켈리야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편57:7,8)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아들암 동굴에 도망하여 숨어서 쓴 시이다.

과거 수많은 실패의 짐을 지고 현재의 모순과 같등하며 불행한 미래로 다시 가려는 습관을 멈추고 새벽을 깨워 보시라. 우리의 미래를 수정할 수 있고 불행한 미래를 막을 수 있는 새벽 시간을 버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훌륭한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고

생명 존중 없는 잔혹한 사회



김용하 전 광주시인협회 회장 광주지검 형사사건 조정위원

근래 16개월 된 아동 정인이의 학대 사망사건이 국민의 큰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아직 의사 표현도 못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를 잘 기르겠다고 입양하여, 온몸에 상상을 못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고, 학대하여 죽음으로 내 몬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것이다.

이란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광범위한 가치로서, 법이나 제도 이전에 생명에 대한 외경심(畏敬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였다. 토마스 아퀴나스·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권리장전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남으로써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 경시의 풍조를 바로 잡으려면 국가와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권 존중 의식을 길러야 한다. 인권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 인간의 자유스러운 삶과 사상, 감정을 속박하거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해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언벌칭 인권을 강조하고 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정서적 안정과 내면적 가치관의 정립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 존중 의식 확산과 이를 실천하는 생명 존중 교육을 어려서부터 실시하여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삶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노력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社說

5월단체 내부 반목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나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5월 단체들이 내부 반목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이면에는 이익을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도 내재돼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1980년 이후 40년간 5·18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온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현재 국가가 인정하는 공법단체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올해 초 ‘5·18민주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5월 3단체의 공법단체화는 5·18 관련자는 물론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공법단체 특권이 이뤄지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수익 사업도 가능해진다.

‘초등생 돌봄 서비스’ 성공적인 정착 기대한다

정부가 초등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둬지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올해 750개, 내년엔 750개 등 모두 1500개의 학교돌봄터를 내년까지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우선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선호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돌봄터는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아침 또는 저녁에 2시간 늘려 운영된다. 하지만 학교돌봄터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無等鼓

은행권 가계대출이 연일 늘어나고 있다. 금리가 낮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심지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은행원이 담보를 계산해 보니 월추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담보가 너무나 큰 탓에 은행원은 ‘정말 1달러만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었다. 유대인은 1달러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은행원은 1달러에 대한 연 금리 6%를 적용, 1년 후 원금 1달러와 이자 6센트를 갚으면 담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유대인은 1달러 지폐를 지갑 속에 넣은 뒤 일어섰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은

의 대출은 빛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은행을 돈을 보관하는 곳이라 생각하라는 경향이 강하다. 금융권은 울타리 불과 2주 만에 은행권에서 14조 원가량의 돈이 빠져나가 증시 주변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금 깨기는 기본이고 연금마저 끊어와 주식은 사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한다. 주가 상승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은행에서 빚을 끌어와 주식 투자를 하는 ‘빚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